

기도할 때가 이때이다

작성일 : 2011. 12. 9(금)

작성자 : 정수영

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던 중 선생님과 섭리사를 놓고 절대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마음에 결단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느꼈고 주님과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.

문화관으로 와서 기도하며 금요 성령집회를 준비할 때 마음에 전해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적게 되었습니다.

* 예수님 말씀 *

내 사랑

나의 신부야

섭리사는 지금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.

각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

너희가 거하는 섭리사를 위해

사랑하는 나의 몸 된 선생을 위해

선생의 욕이 되는 부흥강사를 위해

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.

이때 진정 너희가 얼마만큼 깨워 기도하느냐에 따라 너희의 운명도 좌우되게 된다.

내 너희 선생 통해 기도의 위력에 대해

수많은 말씀을 해 주었다.

진실로 그 말씀을 믿고

너희는 내 아버지와 나 예수 앞에

진실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.

눈물로 간절히 진실로 기도할 때가 이때이다.

악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

내 신부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

악한 마귀 사탄이 내 생명들을 물어가지 못하도록

파수꾼이 되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.

선생의 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라.

이 시대 나의 몸 된 너희 선생 없으면

이 역사는 펼 수가 없노라.

최전방에서 사탄들을 대적하며

총공격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

방패가 되어 서 있으니 너희는 기도로 무장하여 네 선생과 함께 사탄과 악한 무리들을 향해 싸워 이겨야 한다.

선생도 부흥강사도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희가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한다.

사탄이 노리는 것은 오직 중심자이니

너희는 그를 꼭 절실히 지키고 지켜라.

네 선생, 악평자들과 행악자들로 인해

한 생명이라도 잃을까 봐

자신의 생명 돌볼 여유조차 없다.

너희 모두는 깨어서

네 선생의 심정 가지고 내게 간구하라.

모두 새벽을 깨우고 정결히 하여

내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여라.

구약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여라.

그가 내게, 내 아버지께 눈물로 간구함으로

행악자들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물리쳤다.

너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!

내가 진실로 내게 간절히 간구하는

너희 기도예 응답함을 믿느냐.

믿는 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게 구하여라.

이 역사를 네 선생과 함께 이루어 가자.

늘 받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

선생과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며 눈물로 이루며 가자.

그러한 자들만이 역사의 주인 되어

나의 뜻을 이루며 함께 가는 자들이 될 것이니라.

깨어서 기도하고 선생의 말씀 통해

너희에게 기도할 제목을 모두 주었으니

너희는 여호와 앞에, 나 예수 앞에

진실로 구하고 구하여라.

행악자들이 멸하여지도록

나 예수가 진정 네 선생 통해

온전한 역사와 뜻을 펴도록 구하고 구하여라.

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더 발악한다.

사탄들도 어떻게든 그들을 통해

나의 역사를 방해하려 한다.

나의 손을 펼 자가 누구며

나의 편 손을 누가 쥐게 하겠느냐.

오직 나의 사랑하는 네 선생만이

나의 손을 움직이게 한다.

너희는 어느 때보다 지금 기도하여라.
더욱 기도하여 너희 가운데 매인 것을 풀고
너의 영혼이 내 앞에 정결한 신부 되도록
올해를 기도로 마무리하며
나 예수와 일체 되어 가야 한다.
주저하지 말아라.
주저할 시간이 없다.
결단하고 결심하여 행하자.
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.
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큰 원동력이니라.
절대 간구함으로 나에게 나아오라.

나의 사랑 섭리사여
우리 같이 기도하자.
너의 손 나의 손 맞잡고 기도하자.
나의 기도가 너의 입술에 닿아
나의 욕 되어 기도하자.
저 더럽고 무지한 사탄들과 행악자들에게
승리를 주지 말자.
이미 승리는 나의 것이고 내 아버지의 것이나
너희의 책임분담으로 인해
나의 역사는 더 빨리 승리로 갈 수 있느니라.
함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
네 선생의 짐을 덜어주어라.
너희의 사랑의 고백으로 사탄을 물리쳐라.
빛으로 어둠을 물리쳐라.
내 사랑의 불로 모든 악을 소멸하자.
올해가 가기 전 너희 마음속에 있는
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하고
진실로 나의 진리의 군대가 되어 담대히 나가자.
사탄은 너희 발아래 있다.
진리의 군사 되어 사탄들을 짓밟고 일어나자.
승리의 나 주 예수가 너희와 함께함이라.
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며 진리의 밝은 등불을 들고
오직 온전한 이 길만을 가라.
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
나의 중심의 굳건한 신부 되어라.

사랑하는 내 신부들아
너희는 더욱 해처럼 맑고 달처럼 은은하며
기치를 벌인 군인같이 일어나야 하리라.
나의 사랑의 밝은 등을 비추고 날 사랑으로 모시고
진리의 군사 되어 나와 함께 가자.

내 사랑들을 내 더욱 지키고 보호하리니
승리하리라.

승리는 우리 것이다.

내 사랑들이 진정 일어나 빛을 발할 때
네 선생도 힘을 내리라.
일어나 빛을 발하리라.

함께 손잡고 가는 섭리역사다.

너의 손과 나의 손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
함께 가는 거다.

기도의 빛을 발하여라.

내 신부들이 기도의 빛을 발함으로
올해 주와 대역사를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노라.

내 사랑 내 신부에게

내 심정 담아 전하노니 진정 그리 행하자.
안녕.

사랑의 주 예수니라.